특집

제1차 조선교육령기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수록 제재 연구*

– 「흥부전」을 중심으로

김 혜 련**

•차례

1. 조선어과 교과서와 「흥부전」
2. 독본본(讀本本) 「흥부전」의 중심 내용
3. 독본본 「흥부전」의 교재화(敎材化)와 축약 양상
   3.1. 해학과 풍자의 거세
   3.2. 흥부와 놀부, 인물 서사의 약화
   3.3. '조선'의 삭제
4.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 「흥부전」의 이념적 호명

■ 국문초록

「흥부전」은 일제시대 보통학교 교과서에서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

---

* 이 논문은 제31회 돈암어문학회 정기학술대회(2010.10.14, 성신여자대학교)의 "국권침탈 전후 한국어문학의 형세"라는 기획 주제 아래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본 논문을 위해 지정 토론을 해주셨던 성신여대 강진호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성신여자대학교 전임강사.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1-A00104)

www.kci.go.kr

과서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수록되어 왔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1915~1918)에 수록된「흥부전」에 주목하였다. 식민 정부가 조선어과 교과서에「흥부전」을 선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일제 강점기 내내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의 교과 제도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교육 체제 전반을 식민주의 논리에 적합한 형식으로 재구성했던 식민교육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흥부전」의 교재화 목적 역시 일제의 식민통치 속에서 행해졌다. 즉 조선어과 교과서에 수록된「흥부전」은 일본 민담을 준거로 하여 일본과 조선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역사나 문화적으로도 유사하다는 동화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확보의 하나로서 개작되었다.「흥부전」은 일선동조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민담을 준거로 삼아 재구성한 식민 교육용 이본(異本)인 셈이다.

주제어 : 제1차 조선교육령,『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흥부전」,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식민교육용 이본.

www.kci.go.kr

1. 조선어과 교과서와 「흥부전」

1910년 8월 29일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잉여함[制一條 韓國皇帝陛下는 韓國 全部에 關한 一切 統治權을 完全且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으로 시작하는 총 8개조의 '한일병합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시작된 일제 강점은 사실 그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로 닥친 것은 아니었다.[1] 교육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미 대한제국 학부 시기부터 제도나 정책 등의 거시적인 영역에서 각급 학교 체제나 교과의 편성 및 시간표, 방과 후 학교 활동이나 학교 규율 등 미시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성형시술을 실행해왔으며 강제 병합 이후에는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가 통감부의 대한(大韓) 교육정책을 능동적으로 승계하면서 조선 교육의 전반을 식민지 체제로 재편했던 것이다. 일례로 대한제국 학부 시기부터 한국 교육에 관여하고 간섭했던 구마모토의 초안과 일본 제국교육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조선교육령'(칙령 229호, 1911년 8월 23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와 대한제국기 통감 통치 하의 교육 지배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2] 1910년 8월 29일

---

1) 권보드래(2008)는 1910년 8월 일본의 한국 강점은 1905년의 외교권 박탈이나 1907년의 고종 강제 퇴위 당시 일었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저항은 없었다고 한다. 이미 언론과 경찰을 비롯한 제반 제도가 일제에 완전히 장악된 상황에서 1910년 일제의 강점의 오히려 '정적(靜的)'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05년 11월 9일 이토오 히로부미의 지휘로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보의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사이에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위협과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1906년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다. 칙령 제267호 「統監府及理事廳官制」제2조에 의하면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으로서 일본 천황(天皇)에 직예(直隸)한다고 하여 실제로는 일본 국왕권의 대행자로 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통감의 지

www.kci.go.kr

은 명분으로만 잔존해 있던 대한제국의 교육 주권이 완전히 소멸된 연대기점 시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제 병합 이후 '조선교육령'을 근간으로 실행한 식민교육 통치는 대한제국기 통감부가 두 차례에 걸쳐 공포한 학교령과 그에 따른 교육 간섭에 비하면 목적이나 내용면에서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이었다. "새로 생긴 同胞에 대한 施政 중에서 敎育만큼 그 社會民心의 本質에 깊이 作用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新領土 統治 成敗의 根本이 첫째로 그에 달려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大野謙一, 1936:2~3)라는 총독부 학무국장의 강변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교육'은 일본의 식민 통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로 인식되었다. '조선교육령'은 교육 일반의 목적이나 이념과는 관계없이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의 충량한 신민으로 체계적으로 훈육하기 위해 조선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포획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안이었을 뿐이다. 조선총독부 산하 조직 33개 부서 중에서 11개를 교육 관련 조직으로 편성했던 것이나 교육 관련 담당 조직을 독립적인 행정 부서가 아닌 총독부의 내무부 산하 조직으로 설치했던 사실 역시 조선의 교육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사례들이다. 식민지 조선의 교육은 일본의 '신영토 통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정치를 위한 교육의 수단화는 교육 일반 이념은 물론 개별 교과교육학

휘 아래 통감부는 대한제국 국정 전반을 장악하여 1909년 10월에는 통감부 훈령 제10호로 통감부 관방 내에 문서과, 인사과, 회계과와 외무부, 지방부에는 생산, 금융, 종교, 교육, 사법, 경찰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부서를 설치했다. 1909년 12월 현재 통감부의 일본인 관리만 하더라도 고등관 466명, 판임관 1,614명, 순사 1,548명에 이르렀다. 대한제국의 법령, 칙령, 각령, 부령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한제국의 황제권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통감이 실질적인 최고통치권자가 되었다. 1910년 강제 병합 직후 설치한 총독부 및 부속 관서를 보면 1905년 이후의 통감부를 연장하여 강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보면 이후 총독부와 총독은 통감부와 통감을 개칭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통감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서영희(2000:199~219), 박경용(2002:79~110) 등 참조. 아울러 대한제국 통감부 시기 한국 교육의 식민화 과정에 관해서서는 김혜련(2008:24~25) 참조.

www.kci.go.kr

에도 일관되었다. 조선어 교과는 민족어문교과로서의 자격을 찬탈당한 채 외국어 교과 정도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교과교육의 역사에서 거세되는 운명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조선어과 교육을 대상으로 한 식민 정부의 가학적 조처들은 교육 일반의 내적 논리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실행된 식민통치의 산물이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조선어과 교과서의 일부만 일독해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과 교과서는 '조선어급한문(朝鮮語及漢文)'이라는 교과명에서 비롯하여 교과서 체제나 내용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식민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식민 정부의 정치적 기획물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1915~1918)에 수록된 「흥부전」을 대상으로 삼는다.[3] 제1차 조선교육령에 근거하여 편찬된 『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은 총 30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문종으로 구분해보면 설명문(52과)과 논설문(33과) 등과 함께 설화(5과)와 시(6과) 등의 문학적인 교재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허재영, 2009). 그 중 설화 교재로서 「혹잇는노인」, 「방휼지쟁」과 함께 「흥부전」이 수록되어 있다.[4]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普通學

3) 강제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용 교재로 1907년 학부에서 편찬한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총8권)에 '교수상의 주의 및 자구 정정표'를 만들고 임시로 자구 수정을 반영한 형태로 1911년 『朝鮮語讀本』을 출판했다. 시기적으로는 이 교과서가 식민 초기 최초의 교과서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통감부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에 자구 정정만 한 것이어서 식민 통치하의 교과서라고 간주하기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의 교육을 식민 교육체제로 전면 선언한 조선교육령(1911)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주체가 되어 편찬한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1915~1918)을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하의 최초의 조선어 교과서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허재영(2009)를 참조.

4) 한편 『조선어급한문독본』 권2 제24과와 제25과에는 「혹잇는老人」이 실려 있다. 특히 「혹부리영감」은 비슷한 시기 일본의 「소학독본」에도 실려 있다. 이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 수록된 「혹부리영감」에 천착한 김용의(1999)와 「혹부리영감談」의 형성 과정에 관한 김종대(2006)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www.kci.go.kr

校朝鮮語及漢文讀本』 권3(1917)에 수록된 「흥부전」(제48과 「흥부전」(1), 제49과 「흥부전」(2))이 국어 교과서의 교재(敎材)의 신분으로 수록된 최초에 해당한다.[5] 이후 「흥부전」은 일제시대 보통학교 교과서에서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수록되어[6] 이른바 '교육정전'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왔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해방 이후 국어교육사와 「흥부전」이 맺어온 관계에 대한 정밀한 추적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는 우선 일제 강점기 특히 1910년대 식민 정부가 선정한 「흥부전」에 주목하고자 한다. 식민 정부가 조선어과 교과서에 「흥부전」을 호명한 까닭은 무엇일까? 교과서의 편찬 주체였던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관들은 「흥부전」을 교육적 보편성과 조선의 언어문화적 특질과 관계 깊은 교과적 특수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재로 인식한 것일까? 적어도 일제 강점기 내내 규율이나 위생 등 학교 일상의 내밀한 영역에서부터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의 교과 제도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교육 체제 전반을 식민주의 문법에 적합한 형식으로 재구성했던 식민교육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제재와 마찬가지로[7] 「흥부전」의 교재화 의도 역시 교육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8]

---

5)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1915~1918)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에서 '제1차 조선교육령'(1911)을 공포하여 그 이전의 '조선어'와 '한문' 과목을 통합하여 편찬한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 편찬 작업에는 오쿠라 신뻬[小倉進平]가 편수관으로, 역사학자인 오다 쇼우고[小田省吾]가 편수과장으로 관여하였다.

6) 해방 이후 「흥부전」의 수록 양상은 다음과 같다. 건국기 초등 국어4-1/1차 국어 4-1/1차 국어 4-2/2차 국어 4-1/3차 국어 4-1/4차 국어 4-1/5차 초등학교 국어 쓰기 4-1/ 6차 국어 읽기 4-1/ 6차 국어 말하기·듣기 3-1/7차 국어 읽기 1-2/7차 국어 쓰기2-2/7차 국어 말하기 듣기 3-1/7차 국어 읽기 4-1/7차 국어 읽기5-1 등.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조희정(2006) 참조.

7) 김혜련(2008)은 일제강점기 중등학교 조선어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제재 선정의 의도를 제재의 형식과 내용으로 검토한 바 있다.

8) 이와 관련하여 김용의(1999)는 조선총독부가 "內鮮一體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목적으로" 「혹부리 영감」과 「세 개의 병」, 「흥부전」 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www.kci.go.kr

본 연구는 근대 국어교육사에서 일제시대 조선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흥부전」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 그 수록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흥부전」을 저본(底本)에 해당하는 경판본 「흥부전」과 비교하여 그 개작 양상을 검토하고(2절) 이어 조선어과 교과서 이전에 「흥부전」을 수록한 바 있는 『朝鮮の物語集附俚諺』(1910)을 논의 범주로 끌어와 『朝鮮の物語集附俚諺』에 수록된 「흥부전」과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에 수록된 「흥부전」을 비교할 것이다(3절). 이 과정에서 「흥부전」에 관한 식민 정부의 정치적인 해석과 1910년대 식민통치 기획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4절).

2. 독본본(讀本本) 「흥부전」의 중심 내용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에 수록된 「흥부전」(이하 '독본본(讀本本)')을 고찰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이 제재가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흥부전」은 필사본 29종, 경판본 2종, 활자본 7종, 판소리 창본 17종[9]을 비롯하여 모두 50여 종의 이본이 전한다고 알려져 있다(조희웅(1999:890~892); 김창진(1991ㄱ). 이 중에서 '독본본' 「흥부전」은 등장인물이나 서사 구조 및 전개 등을 고려할 경우 경판 25장본을 원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10]

독본본 「흥부전」은 형제담(兄弟談)이나 선악담(善惡談), 동물보은담(動物報恩談) 같은 핵심 서사와 핵심 서사를 추동하는 소화소(小話素) 등에서 경판본 「흥부전」의 구조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독본본 「흥부전」의 내

9) 경판본, 활자본, 판소리 창본의 숫자는 김창진(1991) 참조.

10) 일제시대 일본어로 번역된 고전 소설은 대개 경판 25장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흥부전」만 하더라도 인물들의 이름, 화소의 구성이나 서사의 전개 등이 경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www.kci.go.kr

부로 들어가면 화소의 생략이나 변이, 진술의 축소 현상 등을 서사 곳곳에서 목도할 수 있다. 25장본이라는 적지 않은 경판본 분량이 여섯 면 정도로 축약되어 수록된 독본본을 검토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축약의 방식과 내용이다. 독본본 「흥부전」의 수록 의도는 경판본 「흥부전」을 교재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유지한 화소와 생략한 화소 그리고 새롭게 부각하거나 변개한 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에서 그 일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독본본 「흥부전」의 교재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경판본 「흥부전」을 중심 화소별로 정리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흥부전」을 중심 화소에 따라 88장면에서 적게는 4장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김창진(1991)을 따라 다음과 같이 15개 장면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11]

제1단락 초앞
제2단락 놀부가 흥부를 내쫓다
제3단락 흥부가 가난에 시달리다
제4단락 흥부가 놀부를 찾아가다
제5단락 흥부가 살기 위해 애쓰다
제6단락 도승이 집터를 잡아주다
제7단락 흥부가 제비를 구해주다
제8단락 제비가 박씨를 갖다주다
제9단락 흥부가 박을 타서 부자 되다
제10단락 놀부가 흥부를 찾아오다
제11단락 놀부가 제비를 해치다
제12단락 제비가 박씨를 갖다주다
제13단락 놀부가 박을 타서 망하다
제14단락 마무리
제15단락 뒷풀이

11) 예를 들면 김태준(1966)은 48장면으로 구분하고, 강용권(1976)은 88장면, 권영호(1984)는 55장면, 황숙(1980)의 경우는 4장면으로 그 내용을 구분한 바 있다. 장면을 너무 세분하면 서사의 큰 줄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대략화할 경우에는 정밀한 분석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www.kci.go.kr

제1단락 ‘초앞’은 판소리에서 첫머리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서 본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작가 등의 작품 외적 존재가 하는 말이고 제15단락 ‘뒷풀이’는 작품 외적 존재가 소리를 끝맺는 부분으로 본이야기 뒤에 덧붙이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작품 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제1단락과 제15단락은 이본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 15개 장면에 따라 독본본 「흥부전」의 내용을 경판본 「흥부전」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판본 「흥부전」과 『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흥부전」의 내용 비교

	김창진(1991)	京板 25장본	『朝鮮語及漢文讀本』 권3(1917)
제1단락	초앞	○	×
제2단락	놀부가 흥부를 내쫓다	○	△(간략 제시)
제3단락	흥부가 가난에 시달리다	○	×
제4단락	흥부가 놀부를 찾아가다	○	×
제5단락	흥부가 살기 위해 애쓰다	○	×
제6단락	도승이 집터를 잡아주다	×[12]	×
제7단락	흥부가 제비를 구해주다	○	○
제8단락	제비가 박씨를 갖다주다	○	○
제9단락	흥부 박을 타서 부자되다	○	○
제10단락	놀부가 흥부를 찾아오다	○	○
제11단락	놀부가 제비를 해치다	○	○
제12단락	놀부가 제비를 갖다주다	○	○
제13단락	놀부가 박을 타서 망하다	○	○
제14단락	마무리	○[13]	○
제15단락	뒷풀이	×	×

12) 제6단락 ‘도승이 집터를 잡아주다’는 경성본을 비롯하여 구활자본이나 박문서관본과 필사본 하버드대본 등 4종에는 들어 있지 않다. 김창진(1991:123~124) 참조.

13) 경판본은 이 제14단락에서 ‘놀부가 흥부를 찾아가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물

www.kci.go.kr

경판본과 비교할 경우 독본본 교재화는 주로 제7단락에서 제14단락까지에 해당하는 '제비의 박' 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독본본은 제비가 흥부의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담(報恩談)과 제비가 놀부의 악행을 벌한다는 보수담(報讐談)을 핵심 서사로 삼아 구성되었다. '제비의 박' 화소의 진입로에 배치되어 있는 놀부의 심술 타령, 흥부 처의 가난 타령, 흥부 자식들의 음식 타령이나 흥부 부부의 품팔이와 매품팔이 대목 등 등장인물과 그들의 삶을 형상화하는 풍요로운 서사들이(제3단락~제6단락) 독본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삭제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어과 교과서에 교재화된 「흥부전」은 놀부와 흥부를 비롯한 등장인물에 대한 풍부한 서사적 정보와 그들의 대립 관계를 형상화하는 다채로운 미학적 장치들은 대부분 거세되고 단지 '제비의 박' 화소를 중심으로 하는 보은·보수의 대립적인 모방담(模倣談)으로 '다시 쓰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독본본의 개작은 방대한 저본(底本) 텍스트를 교재화하기 위한 단순한 축약의 결과인 것일까?

3. 독본본 「흥부전」의 교재화(敎材化)와 축약 양상

3.1. 해학과 풍자의 거세

독본본 「흥부전」은 서사의 입구부터 경판본과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이를테면 독본본에서는 「흥부전」의 일반적인 미학적 특질로 거론되는 해학이나 풍자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놀부의 못된 심사를 소개하는 서두만 보더라도 경판본의 경우는 해학적인 관용 표현이나 과장, 열거 등을 통

론 15단락 '뒷풀이'도 없다. 다시 말해 놀부가 흥부를 찾아간 뒤 두 형제가 살림을 반분한다든가 형제가 우애 있게 잘 살았다는 그 뒤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조선어급한문독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점 역시 『조선어급한문독본』이 경판본을 개작의 저본으로 사용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www.kci.go.kr

해 놀부를 희극적으로 형상화한다.

> 놀부 심ᄉᆞ를 볼작시면 초상난 ᄃᆡ 춤츄기 불붓는 ᄃᆡ 부치질ᄒᆞ기 히산ᄒᆞᆫ ᄃᆡ 지닭 잡기 장의가면 억ᄆᆡ 흥졍ᄒᆞ기 집의셔 못쓸 노릇ᄒᆞ기 우는 ᄋᆞ히 볼기치기 갓난 ᄋᆞ히 똥먹이기 무죄ᄒᆞᆫ 놈 쌈치기 빗갑식 계집 쪽기 늙은 영감 덜ᄆᆡ잡기 ᄋᆞ해 빈 계집 ᄇᆡ츠기 우물 ᄆᆡᆺᄐᆡ 똥누기 오려논의 물터놋키 잣친밥의돌 퍼붓기 피는 곡식 삭ᄌᆞ르기 논두렁의 구멍 ᄲᅮᆯ기 호박의 말뚝 박기 곱장이 업허놋코 발꿈치로 탕탕 치기 심ᄉᆞ가 모과나모의 ᄋᆞ들이라 이 놈의 심슐은 이러ᄒᆞ되 집은 부ᄌᆞ라.
>
> — 경판 25장본 1—앞

> 兄 놀부는 욕심이 만코, 못된 짓을 만히 하야, 이웃까지 不安케 하얏소
>
> — 독본본, 163쪽

이러한 내용을 독본본에서는 "兄 놀부는 욕심이 만코, 못된 짓을 만히 하야, 이웃까지 不安케 하얏소"라는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욕심 많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나쁜 인물' 정도로 인물에 대한 간략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인물의 대강화(大綱化)는 흥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흥부는 집도 업시 집을 지으려고 집지목을 ᄂᆡ려가량이면 만쳡쳥산 드러가셔 소부동 ᄃᆡ부동을 와드렁 퉁탕 버혀다가 안방 ᄃᆡ쳥 힝낭 몸치 ᄂᆡ의분합 물님퇴의 살미살창 가로다지 입구ᄌᆞ로 지은 거시 아니라 **이놈은** 집지목을 ᄂᆡ려ᄒᆞ고 슈슈밧 틈으로 드러가셔 슈슈ᄃᆡ ᄒᆞᆫ 뭇슬 뷔여다가 안방 ᄃᆡ쳥 힝낭 몸치 두루지퍼 말집을 쏵 짓고 도라보니 슈슈ᄃᆡ 반 뭇시 그져 남앗고나 방 안이 널던지 마던지 양쥐 드리누어 기지게 켜면 발은 마당으로 가고 ᄃᆡ골이는 뒷겻트로 밍ᄌᆞ ᄋᆞᄅᆡ ᄃᆡ문ᄒᆞ고 엉덩이는 울ᄐᆞ리 밧그로 나가니 동니 ᄉᆞ롬이 출입ᄒᆞ다가 이 엉덩이 불너드리소 ᄒᆞ는 소리 흥뷔 듯고 깜작 놀ᄂᆞ ᄃᆡ셩통곡 우는 소ᄅᆡ
>
> — 경판 25장본 1—뒤, 진한 글자 인용자

www.kci.go.kr

아우 興夫는, 형 놀부와 判異하야, 마음이 極히 正直하고, 山밋 數間斗屋 속에서, 여러 子息을 다리고 家勢가 赤貧한 살님을 하얏소

— 독본본, 163쪽

경판본의 경우 너무나 가난해서 의식(衣食)은 물론이고 주(住)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흥부네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위 대목에서 독자들은 흥부에 대한 연민과 함께 해학을, 슬픔과 함께 웃음을 동시에 맛보는 미학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개작한 독본본은 "아우 興夫는, 형 놀부와 判異하야, 마음이 極히 正直하고, 山밋 數間斗屋 속에서, 여러 子息을 다리고 家勢가 赤貧한 살님을 하얏소" 정도로서 간략하게 사실 정보만 제시한다. 특히 경판본 위 장면은 흥부가 형 놀부로부터 쫓겨난 뒤 변변찮은 재료로 집을 짓는 과정과 그 집이 집 구실도 못해 기괴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물론 이때 흥부는 비루하고 처절하기까지 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 읽어야 할 대목은 흥부에 대한 창자(혹은 독자)의 시선이다. 진한 글자로 처리한 '이놈은'은 집을 짓는 흥부의 모습을 통해 흥부의 삶의 방식이나 인간됨에 대한 창자-독자의 조소적, 비판적 태도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흥부의 선한 욕망과 그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비합리적인 삶의 방식에 대하여 창자(독자)는 동정적인 시선과 조소적인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흥부가 손수 지은 집의 기괴한 모습에서 발산되는 '웃음'이라는 코드는 흥부의 가난과 비루함을 향한 독자의 연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전체 서사를 긴장시키는 동력으로 기능한다. 「흥부전」을 서사 내적으로 결속시키는 '웃음'이라는 장치는 쌀을 얻기 위해 형을 찾아가면서도 의관정제(衣冠整齊)를 갖추고 가는 대목에서도 이내 발견된다. 등장인물을 향한 동정과 조소라는 두 상반된 시선은 팽팽하게 길항 관계를 형성하면

www.kci.go.kr

서 「흥부전」을 해학과 풍자가 풍부하게 공존하는 미적 텍스트로 구조화한다. 그러나 독본본 「흥부전」은 열거와 과장, 장면의 극대화를 통한 해학과 풍자, 그로 인한 웃음을 제거하여 보통학교 학습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흥부전」의 미학적인 경험을 차단해버린 셈이다.

3.2. 흥부와 놀부, 인물 서사의 약화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독본본 「흥부전」은 '제비의 박'을 중심으로 하는 보은·보수담이 핵심 서사이다. 두 과로 구성되어 있는 「흥부전」은 전체 지면이 8면 65줄 정도의 분량에 걸쳐 있으며 그 중 제7단락부터 제14단락에 해당하는 제비의 보은·보수담이 7면 59줄 정도의 분량을 차지한다. 물론 경판본 「흥부전」 역시 제비의 보은·보수담이 중심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제비의 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보은·보수담이 「흥부전」 전체에서 핵심 화소이자 절정 서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선행하는 소화소들의 인과적인 파급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테면 「흥부전」의 초입에 배치된 흥부 선심선행(善心善行) 사설들은 흥부에 대한 제비의 보은 박씨담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놀부가 제비의 보수(報讐) 박씨로 인해 망하는 결말 역시 선행하는 놀부의 심술타령과 악행 관련 사설들이 서사적 계기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흥부전」의 미학은 놀부와 흥부라는 인물 그리고 그들의 삶, 나아가 서사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창자(독자)의 시선 등이 '제비의 박' 이야기라는 핵심 서사를 탄탄하게 보좌하는 데서 형성되는 것이다. 다음은 경판본 서두에 제시되고 있는, 형 놀부가 동생 흥부를 내쫓는 장면이다.

> 놀부 심ᄉᆞ 무거ᄒᆞ여 부모싱젼 분지젼답을 홀노 ᄎᆞ지ᄒᆞ고 흥부갓튼 어진 동싱을 구박ᄒᆞ여 건넌산 언덕밋히 닉쩌리고 나가며 조롱ᄒᆞ고 드러가며 비

www.kci.go.kr

양ᄒᆞ니 엇지 아니 무지ᄒᆞ리.

— 경판 25장본 1—앞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한 후 동생을 집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동생을 '조롱'하고 '비양'하기까지 하는 악한 인물로 그려진다. 즉 놀부라는 인물을 동생을 구박하고 천대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산까지 독차지하는 '나쁜 형'으로 형상화하여 창자(독자)로 하여금 서두에서부터 이미 동생 흥부에게는 연민을, 놀부에게는 적대감을 갖게 한다. 놀부에 대한 창자(독자)의 반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놀부 심술사설에서, 흥부에 대한 연민은 다시 그 뒤에 이어지는 '건넌산 언덧밋'으로 쫓겨난 흥부가 수숫대로 집을 짓는 장면에서 보다 깊어진다. 특히 형에게 내쫓긴 후 형에 대한 어떤 불평도 없이 주어진 처지에서 나름대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을 만들어가는 흥부의 모습은 형의 악행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착한 동생'의 전형으로 서서히 창조된다.[14] 비록 수숫대로 집을 짓는 모습이나 지어놓은 집이 "드러누어 기지게 켜면 발은 마당으로 가고 ᄃᆡ골이는 뒷겻트로 밍ᄀᆞ ᄋᆞᄅᆡ ᄃᆡ문ᄒᆞ고 엉덩이는 울ᄐᆞ리 밧그로 나가"는 형국일 만큼 어수룩한 인물로 그려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자가 흥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따뜻한 연민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흥부에 대한 창자(독자)의 정서적 호의는 흥부와 흥부 아내가 갖가지 품팔이를 하면서 삶을 연명해나가는 모습에서 더욱 절실해진다. 예컨대 흥부 아내가 "용정방아 키질하기, 매주가에 술 거르기, 초상집에 제복 짓기, 제사집에 그릇 닦기, 제사(祭祀)집에 떡 만들기, 언손 불고 오좀 치기,

14) 신재효본에서 보이는 흥부의 태도는 경판본과는 다소 다르다. 이를테면 신재효 본의 경우는 쫓겨난 이후 흥부 가족들이 객사(客舍)나 사정(射亭)에서 묵기도 하는 등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삶을 살다가 겨우 복덕촌의 한 빈 집에 정착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면의 삽입 역시 경판본과 마찬가지로 흥부와 놀부의 인물됨을 형상화하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www.kci.go.kr

해빙하면 나물 뜯기, 춘모 갈아 보리 좋기, 온갖으로 품을 팔고 흥부는 정이월에 가래질하기, 이삼월에 붙임하기, 일등전답 못논 갈기, 입하 전에 면화 갈기, 이집 저집 이엉 엮기, 더운 날에 보리 치기, 비 오는 날멍석 걷기, 원산근산 시초(柴草) 베기, 무곡주인(貿穀主人) 역인 지기, 각읍(各邑)주인 삯길 가기, 술만 먹고 말짐 싣기, 오푼 받고 마철 박기, 두푼 받고 똥 재치기, 한푼 받고 비 매기, 식전에 마당 쓸기, 저녁에 아해 만들기, 온가지" 일을 다 해보지만 흥부네 삶의 질은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 마오. 부모 혈육을 가지고 매삯이란 말이 우엔 말이요"라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흥부는 매품팔이까지 시도한다. 그러나 그 일마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다음은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장면이다.

> 흥부 안히 ᄒᆞ는 말이 우지마오. 제발 덕분 우지 마오 봉제ᄉᆞ ᄌᆞ손되여 ᄂᆞ서 금화금벌 뉘라 ᄒᆞ며 가뫼 되여ᄂᆞ셔 낭군을 못 살니니 녀ᄌᆞ 힝실 참혹ᄒᆞ고 유ᄌᆞ유녀 못 출히니 어미 도리 업는지라 이를 엇지홀고 ᄋᆡ고ᄋᆡ고 셜운지고 피눈물이 반듁 되던 아황녀영의 셜움이오 조작가 지어니던 우마시의 셜움이요 반야산 ᄇᆞ회틈의 슉낭ᄌᆞ의 셜움을 젹ᄌᆞ 혼들 어니 칙의 다 젹으며 만경창파 구곡슈를 말말이 두량ᄒᆞ량이면 어니 말노 다 되며 구만니 쟝텬을 ᄌᆞᄌᆞ이 지이랸들 어니 ᄌᆞ로 다 ᄌᆞ힐고 이런 셜움 져런 설움 다 후리쳐 ᄇᆞ려두고 이제나만 듁고지고 ᄒᆞ며 두 듀머괴를 불근 뒤여 가슴을 쾅쾅 두ᄃᆞ리니 흥뷔 역시 비감ᄒᆞ여 이른 말이 우지 말소 안연갓튼 셩인도 안빈낙도ᄒᆞ엿고 부암의 담ᄊᆞ턴 부열이도 무경을 맛ᄂᆞ 지상이 되엿고 산야의 밧 가던 이윤이도 은탕을 맛ᄂᆞ 귀히 되엿고 한신갓튼 영웅도 초년궁곤ᄒᆞ다가 한ᄂᆞ라 원융이 되여스니 엇지 아니 거록ᄒᆞ뇨 우리도 ᄆᆞ음만 올케 먹고 되는 ᄯᅢ를 기ᄃᆞ려봅시
>
> — 경판 25장본 6－앞, 6－뒤

이 장면은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시도해도 개선되지 않는 삶에 대한 서러움과 회한이 흥부 아내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전반부와 온갖 고난들이 닥쳐도 '마음만 옳게 먹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올 것이라고 흥부가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후반부로 구성된다.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

www.kci.go.kr

하는 흥부를 질타할 수도 있겠지만 형에게 내쫓긴 후 온갖 품팔이로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해결되지 않아 매품팔이까지 시도했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흥부 아내가 내지르는 절규와 그를 위로하는 흥부의 말은 처연하리만큼 안타깝게 들린다. 보은담(報恩談) 서사가 위 대목 이후에야 제시되는 것은 '제비의 보은을 통한 흥부의 복(福)'이라는 전체 서사의 결말을 극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서사적 배치인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놀부의 징치(懲治)라는 결말에 이르기 위해 놀부의 악행 사설들을 경판본 서두에 꼼꼼하게 심어놓은 데서도 동일하다. 결국 '제비의 박' 화소가 「흥부전」의 극적인 핵심 서사로 옹립되는 것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는 소화소들이 핵심 화소의 서사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독본본 「흥부전」은 이 모든 서사들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을 뿐이다.

> 옛날, 어느 곳에, 놀부와 興夫라 하는 사람 兄弟가 잇섯소. 兄 놀부는 慾心이 만코, 못된짓을 만히하야, 이웃까지 不安케 하얏소. 아우 興夫는, 형 놀부와 判異하야, 마음이 極히 正直하고, 山밋 數間斗屋속에서, 여러 子息을 다리고 家勢가 赤貧한 살님을 하얏소.
>
> — 독본본, 163쪽

이 부분에서는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 '욕심 많고 못된 짓 많이 하는 놀부', '정직하고 가세 적빈한 흥부'라는 인물 요소만을 만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서사적 정보는 체득하기 어렵다. '놀부는 나쁘고, 흥부는 착하며, 그들은 형제이다' 정도 이상의 그 어떤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는 이들 형제가 서사의 중심이 될 만큼 특별한 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극히 단순하고 서로 무관하기까지 해 보이는 이러한 인물 소개 방식은 독본본 「흥부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비의 박' 이야기조차 '흥부의 보은담'과 '놀부의 보수담'이라는 두 개의 작은 서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독본본 「흥부전」은

www.kci.go.kr

「흥부전」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온 삶의 맥락들을 대부분 제거하고 단지 동물의 보은·보수담과 모방담이라는 기본 골격만 살려낸 셈이다.

3.3. '조선'의 삭제

김창진(1991)의 구분에 따르면 제2단락 '놀부가 흥부를 내쫓다'는 구체적으로 (1) 사는 곳 (2) 사는 사람 (3) 놀부 소개 (4) 흥부 소개 (5) 놀부가 흥부를 내쫓음(① 재산 독차지 ② 내쫓음 ③ 기타) 등의 다섯 화소로 세분된다.

	단락 내 소화소(小話素)[15]	경판 25장본	독본(讀本)본
제2 단락	(1) 사는 곳	○(경상 전라 양도지경)	옛날, 어느 곳
	(2) 사는 사람	○	○
	(3) 놀부 ① 오장칠부 ② 심술타령 ③ 부자	× ○ ○	× △(간략 제시) ×
	(4) 흥부 ① 집 모습 ② 음식타령 ③ 처(妻)의 권유	○ ○ ○	× × ×
	(5) 내쫓음 ① 재산 독차지 ② 내쫓음 ③ 기타	○ ○ ○(건넌산 언덕밑)	× × ×

제2단락-(1)을 비교해보면, 경판본은 흥부전의 공간적 배경을 '경상 전라 양도지경'으로 제시하여 흥부전이 조선의 이야기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독본본은 구체적인 지명을 '어느 곳'이라는 불특정 배

15) 김창진(1991)의 구분을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www.kci.go.kr

경으로 바꾸었다. 「흥부전」을 교재로 수록하기 위해 실행한 또 하나의 기획은 '조선 지우기'였다. 조선의 삭제 작업은 위의 제2단락 외에도 서사의 곳곳에서 실행했으며 교재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살아난 보은·보수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놀부의 세 번째 박에서 나온 상제는 놀부의 애통을 위한 제물로 놀부에게 오천 냥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친다. 이 장면에서 놀부의 애통을 '강릉 삼척 꿀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네 번째 박에서 나온 무당은 강신(降神)을 위한 내림굿에서 "안광당 국수당 마누라, 개성부 덕물산 최영 장군 마누라, 왕십리 아가씨당 마누라, 고개고개 두좌하옵신 성황당 마누라" 등을 부른다. 이러한 조선을 대유하는 이러한 기표들이 독본본에 와서 모두 삭제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학교의 공식적인 수업 매체인 교과서 안에서 '조선'을 함축하는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강제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가장 긴급하게 실행한 작업이다. 조선을 식민지 교육 체제로 재편하면서 제국 국민의 품성 함양과 일본어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총독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교육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관리 즉 교과서 문제였다.[16]

식민 당국이 교과서 편찬을 얼마나 중시했었는지는 본격적인 식민 통치 이전 식민 교육 체제의 모델을 구상한 바 있는 시데하라가 해임된 이유에서도 확인된다.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는 대한제국 학부의 학정 참여관으로 고빙되어 일제의 식민지 교육 체계를 정초한 인물로 알려진 시데하라를 교과서 편찬 작업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들어 전격 해임했다(백광렬, 2005:72). 시데하라를 해임한 후 교과서 편찬 업무만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실무자로 이토는 미츠지를 임명했고[17] 1908년 미츠지가 중

16) 식민지 조선의 교육과 교과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혜련(2008) 참조.

17) 이토는 통감부 교육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향후 식민지 교육 체제의 순조로운 착근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www.kci.go.kr

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일본으로 귀국하자 교과서 편찬직 후임으로 일본에서 사범학교 교수 및 중학교 교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던 오다 쇼우고[小田省吾]를 데려왔다. 그러나 식민 통치 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과서 편찬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학부 때 발간된 교과서(1907)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시적으로 구학부 발간 교과서를 사용하되 급한 대로 식민 체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부터 우선 시행했다.

> 그리하여 드디어 병합이 되고 보니, 구한국정부 학부에서 재작했던 교과서도 부적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신서와 같은 것에는 한국의 축제일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병합 후에는 일본의 축제일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기타 많은 것이 종래 그대로는 시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래 인가해 왔던 다수의 교과서를 철야로 매우 급하게 다시 내용을 조사하여 틀린 부분을 정정하고, 일본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교육해야 된다는 주의서를 각 사항마다 써서 그것을 인쇄하여 각 학교에 배포했던 것입니다. (『今昔三十年座談會速記錄』, 1938:31)

오다는 병합 이전에 사용했던 교과서가 식민 통치 이념에 비추어 '부적당하'고 '시세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할 수는 없었으므로 우선 기존의 교과서를 수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자구의 수정 작업을 '철야'를 하면서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식민 통치에서 교과서가 중요한 통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다는 우선 조선의 국가적 지위의 변동에 따른 부적합한 교재(教材)나 자구(字句)를 정정

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중 이토가 가장 중시한 분야는 교과서 편찬 사업이었다. 이토는 교과서 편찬 업무를 주관하던 시데하라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파악하여 그를 해임한 후 다와라 마고이치와 미츠지 츄조에게 교과서 편찬 전담 업무를 할당했다. 통감부 서기관 다와라에게는 교육 제도의 개편 및 일본어교육의 보급업무를, 동경사범 출신의 미츠지에게는 교과서 편찬 업무를 각각 분담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국 교육의 식민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갔다(弓削幸太郎, 1923:71).

www.kci.go.kr

하고 교수상 주의해야 사항을 철야 작업을 통해 완성하여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라는 책자를 만들어 인쇄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조선의 전국 백여 개의 관공립학교와 이천 수백 여 개의 사립학교에 배포되어 1911년 첫 학기부터 적용하도록 강제되었다(小田省吾, 1917:2, 이명화, 2006:152 재인용). 이 문서는 실질적으로 총독부가 식민체제에 적합한 교과서 편찬 작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발포한 문서에 해당한다. 이 문서의 '例言'에는 총독부가 실행하는 교과서 정정 및 개정 작업의 기준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총독부는 "조선에 있어서의 청년 및 아동의 학수할 교과서로서, 그 내용이 매우 부적당한 것이 있"어서 교과서를 정정 출판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예컨대 한국 병합의 사실, 축제일에 관한 건, 신제도의 대요 등은 새롭게 교수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수 내용으로 간주했던 것이다.[18]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용 교과서를 재출간하였으며 이 교과서의 주된 의도는 '식민 상황 주지' 및 '황민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허재영, 2009:78~83).

그러나 '조선교육령'의 공포 이후 식민지 조선의 교육은 일본 교육칙어의 정신을 조선 교육의 기조로 하여 일본의 교육 이념이 식민지 조선 교육의 이념적 바탕이 되어야 함을 천명했으며(제2조)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제3조)으로 식민지 조선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교육령'의 최고 행정권자였던 당시 조선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는 일본과는 달리 조선에만 해당되는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다음 '유고(諭告)'를 통해 밝히고 있다.

> 생각건대 조선은 아직도 내지(內地)와 그 사정이 같지 않은 바 있다. 따라

18) 朝鮮總督府 內務部 學務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 1910.

www.kci.go.kr

> 서 그 교육은 특히 역점을 덕성(德性)의 함양(涵養)과 국어(國語)의 보급에 둠으로써 제국신민(帝國臣民)다운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 가령 공리(空理)를 논하고 실행(實行)을 멀리하며, 근로(勤勞)를 싫어하고 안일(安逸)에 흘러, 실질(實質), 돈후(敦厚)의 미속(美俗)을 버리고 경조부박(輕佻浮薄)의 악풍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일신(一身)을 그르치고 국가(國家)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행함에 있어 모름지기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응시켜 양선(良善)한 효과(效果)를 거두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19]

이 유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위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이 '내지(內地)와 그 사정이 같지 않은 바' 즉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 이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교육이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특수한' 교육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식민주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식민지 조선에서 별도로 수행되어야 할 교육 내용의 선정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덕성의 함양'과 '국어의 보급'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시데하라가 제시한 바 있는 '선량'의 식민주의적 변용어에 해당하는 '덕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데라우치의 문맥을 좀 더 따라가보자. 그는 조선의 교육이 전통적으로 '공리(空理)'와 '안일(安逸)' 그리고 '경조부박(輕佻浮薄)'의 악풍에 젖어 있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일신(一身)과 국가(國家)의 양선(良善)을 위해서 조선인이 함양해야 하는 정신적, 윤리적 세목으로서 '실행(實行)'과 '근로(勤勞)', '실질(實質)', '돈후(敦厚)' 등의 '미속(美俗)'적 가치를 제안한다. 이들 세목은 식민지기 내내 조선인들이 함양해야 하는 수행적 태도이자 식민지 교육의 이념태인 '덕성'을 구성하는 항목들로 강조되었다. 데라우치가 강조한 '덕성'이 '조선교육령' 제2

19)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京城:朝鮮教育會, 1936(『植民地朝鮮教育政策資料集成』 28권, 大學書院, 1990), 52쪽.

www.kci.go.kr

조를 통해 식민주의 교육이 형성하고자 하는 '충량한 국민'의 내면을 구성하는 핵심적 자질임은 물론이다.

조선인을 제국 일본의 '충량한 국민'으로 재편하기 위한 교육적 프로젝트이자 식민 교육 체제의 최초의 선언[20]에 해당하는 '조선교육령'에 의한 조선어과 교과서는 조선인을 '충량한 국민'으로 새롭게 구성해내기 위해 편찬한 기획 상품이었던 셈이다. 그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작업의 시초가 이미 1910년 병합 직후 완성하여 배포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敎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敎科用圖書ニ關スル敎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였으며 이후 편찬하는 교과서를 통해서는 조선(조선인)이라는 국가(민)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들은 모두 일본(일본인)으로 정정하여 제시되거나 아예 삭제되었다. 그런데 교과서 안의 '조선 지우기'가 「흥부전」의 경우 보다 문제적인 것은 그 출전이 문부성 편찬의 다른 교과서에서 추출한 텍스트나 혹은 조선의 식민 상황에 적합하도록 교과서 편수관들이 새롭게 쓴 텍스트와는 그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흥부전」은 조선의 전통적인 구비 전승 텍스트이며 조선인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자질들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함축하는 텍스트이다.[21]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진 조선의 언어문화 텍스트를 식민통치를 위한 교육 기획 자료인 조선어과 교과서에 수록하면서 원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을 제거한 것이다. 독본본 「흥부전」에서

20) 조선교육령은 대한제국 학부 시기부터 조선 교육에 간섭해 온 구마모토의 초안과 일본 제국교육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백광렬(2005:73~79) 참조.

21) 사실 「흥부전」의 핵심 서사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은(보수)담이나 모방담 등은 동양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민담의 구조이기도 하다. 「흥부전」의 근원 설화로 알려져 있는 '박타는 처녀 설화'만 하더라도 몽고의 설화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이야기로서 「흥부전」을 수록했다기보다는 일본에도 있고, 몽고에도 있고, 또 동아시아는 물론 그 어딘가에도 무수히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간주했을 가능성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www.kci.go.kr

'조선'은 사라지고 말았다.[22]

4.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 「흥부전」의 이념적 호명

독본본이 경판 25장본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부분은 제비의 보은·보수담이다. 다시 말해 흥부 집에 둥지를 짓고 살았던 제비가 강남에 가서 제비황제에게 자신을 구해준 흥부에 대해서 고한다. 그러자 제비황제는 흥부의 '친절함'을 고맙게 여기고 '보은(報恩)박'을 주어 흥부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제비에게 해악을 가했던 놀부에게는 '보수(報讐)박'을 주어 놀부를 징벌하고 그의 전 재산을 빼앗아버린다는 서사의 기본 골격은 거의 그대로 살아남았다. 제시하고 있는 박의 순서만 다를 뿐 박 안의 내용물도 거의 유사하다. 흥부 박의 경우 경판본에는 네 개의 박이 나오며 그 내용물은 청의동자, 선약(첫 번째 박), 온갖 세간(두 번째 박), 집, 곡, 돈, 비단, 남녀 종(세 번째 박), 양귀비(네 번째 박) 등이다. 독본본 역시 네 번째 박에서 나온, 흥부의 첩이 되는 양귀비가 삭제되었을 뿐 나머지는 순서와 내용물이 거의 비슷하다. 놀부 박은 경판본이 열 두 개로 제시된 데 비해서 독본본의 놀부 박은 모두 열 개다. '가야금 타는 놈', '늙은 중', '喪人', '팔도 무녀', '큰 상주를 진 놈', '초란이탈 쓴 놈', '수당거사', '왈자', '八道巡경', '똥' 등은 모두 동일하되 경판본에 있는 '양반'과 '장비' 등 두 가지 내용물이 독본본에서

22)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 교과서를 꼼꼼하게 분석한 바 있는 허재영(2009)은 이 교과서의 내용을 '교훈적인 내용', '황민화나 식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내용', '실업 교육과 위생 담론'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또한 이전의 보통학교 조선어과 교과서와는 달리 이 교과서의 경우 설화나 시 등도 수록하고 있어 체계상 언어교과의 정서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그가 언급하는 '언어교과의 정서교육'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설화나 시' 등의 정서적 교재가 교과용 도서에 왜 수록되었는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아울러 요구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록 교재의 내용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실행된 것이다.

www.kci.go.kr

는 삭제되었다.[23] 독본본 「흥부전」은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 소개-흥부의 제비 이야기-놀부의 제비 이야기' 등 세 부분으로 원작을 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풍부한 해학적, 골계적 요소와 반복과 열거, 과장을 통해 형상화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서사적 정보는 물론 서사의 배경을 형성하는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까지 삭제하여 원본 서사의 미학적 특질을 대폭 축소하거나 변개하면서까지 「흥부전」을 수록한 의도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통학교 조선어과 교과서 이전에 「흥부전」을 수록한 바 있는 『朝鮮の物語集附俚諺』(1910)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朝鮮の物語集附俚諺』은 다카하시 도오루[24]가 조선의 민속적이며 언어문화적인 특질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집한 것으로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 9월 5일 경성의 일한서방(日韓書房)에서 간행했다. 여기에는 조선의 구비설화 24편과 고전소설 4편을 비롯하여 모두 28편의 서사 작품과 547개의 속담이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朝鮮の物語集附俚諺』은 「선녀와 나무꾼(仙女の羽衣)」, 「혹부리영감(瘤取)」, 「말하는 남생이(解語龜)」, 「도깨비방망이(鬼失金銀棒)」,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韓樣松山鏡)」, 「사람과 호랑이의 다툼(人と虎との爭ひ)」과 같은 구전 설화를 활자화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일단 사료적인 가치가 인정되며 「흥부전」과 함께 「장화홍련전」, 「재생연」, 「춘향전」 등이 축약된 형식이긴 하지만 거의 최초로 일본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25]

---

23) 이후 『조선동화집』에서는 1915년 독본본에서 삭제되었던 '양반'과 '장비'가 각각 일곱 번째 박과 열한 번째 박의 내용물로 다시 등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24) 다카하시 도오루(1878~1967)는 1903년에 조선에 건너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한성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이래 대구고등보통학교 교장, 경성제대 교수, 혜화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조선의 문학, 종교, 철학, 문화, 역사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한 일인 학자이다. 아울러 『朝鮮の物語集附俚諺』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권혁래(2008)를 참조하였다.

25) 권혁래(2007ㄴ)에 의하면 이에 앞서 1882년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가 「춘향전」을 '鷄林情話 春香傳'이라는 제목으로 아사히신문에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

www.kci.go.kr

『朝鮮の物語集附俚諺』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1910년 9월 5일이라는 간행 시기이다. 강제 병합의 공식적인 기점이 1910년 8월 29일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자료를 채록하고 수집한 일련의 작업은 이미 강제 병합 이전부터 실행되었던 것이다. 다카하시는 조선의 구전 설화와 속담을 무엇 때문에 수집한 것일까? 아래 인용문은 역사학자이자 일본문학자인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가 쓴 『朝鮮の物語集附俚諺』에 쓴 서문의 일부이다.

> 한국과 일본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옛 전설에는 동일한 형태(同型)가 많다. 하지만 정교(政教)가 분리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각 변화하게 되면서 각각의 국민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지금 이 책에 관해 한 두가지 예를 든다면, 도깨비에게 혹을 떼어주는 이야기는 『宇治拾遺物語』의 전설에 동일하게 있으며, 「하고로모덴세츠」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우리는 이것을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들은 선녀의 승천을 추적하여 구름에까지 들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담백한 부분에서 그 국민성을 엿볼 수 있다.

하기노는 먼저 위 인용문의 앞에서 "한국의 현상을 조사해서 우리 中古史의 半面과 비교"하기 위해서 『朝鮮の物語集附俚諺』을 편찬한 것이라고 밝힌 후 다카하시의 연구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한국의 현상'을 '일본의 中古史의 半面'과 비교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것은 '한국과 일본은 같은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양국이 현재로서는 정교(政教)가 분리된 모습이지만 원래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나라'라는 단정적 기술은 그들이 식민통치의 핵심으로 삼았던 동화정책과 '동화'의 근거 논리로 활용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 상당부분 겹친다. 이렇게 보자면 『朝鮮の物語集附俚諺』은 '일선동조론'을 이론화하여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기 위하여 조선의 언어문화 자료

한 연구 논저는 권혁래(2007ㄴ:365, 각주4) 참조.

www.kci.go.kr

들을 채록하여 재구성한 자료집에 해당하는 셈이다. 나아가 "읽는 사람들이 민정(民情)을 쉽게 파악하여 나라의 풍속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선의 설화를 수집하고 비교한다는 서문 마지막의 진술은 『朝鮮の物語集附俚諺』이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으로 간행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朝鮮の物語集附俚諺』의 편찬 의도는 그 안에 수록된 「흥부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는 「흥부전」이 어떤 모습으로 수록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朝鮮の物語集附俚諺』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를 정밀하게 고구한 바 있는 권혁래(2008)는 『朝鮮の物語集附俚諺』에 수록된 「흥부전」을 두고 "짧은 분량이지만, 5개의 흥부 박, 11개의 놀부 박 화소를 포함하여 경판 25장본에 있는 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朝鮮の物語集附俚諺』본 「흥부전」을 저본으로 삼은 경판본 「흥부전」, 그리고 독본본 「흥부전」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소화소(小話素)[26]	京板 25장본	『朝鮮の物語集附俚諺』(1910)	『朝鮮語及漢文讀本』 권3(1917)
제2 단락	(1) 사는 곳	○(경상 전라 양도지경)	×(옛날)	×(옛날, 어느 곳)
	(2) 사는 사람	○	○	○
	(3) 놀부 ① 재산 독차지 ② 내쫓음 ③ 조롱・비양	 ○ ○ ○	 ○ × ×	 × × ×
	(4) 놀부 ① 오장칠부 ② 심술타령 ③ 부자	 × ○ ○	 × × ×	 × △(간략 제시) ×
제3 단락	(1) 흥부 ① 집	 ○	 ○	 ○
	② 신세 한탄	○	○	×
	③ 자식	○	×	×
	④ 굶주림	○	×	×

www.kci.go.kr

제4 단락	흥부 (1) 놀부를 찾아감	○	○	×
	(2) 맞고 쫓겨나옴	○	○	×
	(3) 흥부 아내 기다림	○	×	×
	(4) 흥부가 형 변호	○	×	×
제5 단락	(1) 장자집 찾아감	○	×	×
	(2) 품팔기	○	×	×
	(3) 매품팔기 및 실패	○	○[27]	×
제6 단락	도승 화소	×	×	×
제7 단락	(1) 제비가 찾아옴	○	○	○
	(2) 제비가 다치다	○	○	○
	(3) 흥부가 제비를 치료	○	○	○
	(4) 제비 날아감	○	○	○
제8 단락	(1) 제비왕이 보은 박씨 하사	○	○	○
	(2) 제비가 박씨 가져옴	○	○	○
	(3) 흥부 박씨 심음	○	○	○
	(4) 박 네 통 열림	○	○	세 통
제9 단락	(1) 박 타기 전	○	○	×
	(2) 선약・쌀궤돈궤・비단・미인	○	○	○(미인×)
제10 단락	놀부 (1) 놀부가 소문 들음	○	○	×
	(2) 흥부 찾아와 사연 들음	○	○	○
	(3) 흥부집에서-양귀비, 화초장	○	×	×
제11 단락	(1) 놀부 제비 몰러 감	○	○	×
	(2) 제비 찾아옴	○	○	○
	(3) 제비 다리 부러뜨림	○	○	○
	(4) 제비가 살아남	○	○	○
제12 단락	(1) 제비왕 분노-보수 박씨	○(황제)	○(국왕)	○(왕)
	(2) 제비가 박씨 가져옴	○	○	○
	(3) 놀부 박씨 심음	○	○	○
	(4) 박 십여 통 열림	○	○(11통)	○(10통)
제13 단락	(1) 박 타기 전	○	○	×
	(2) 가얏고쟁이 등.	○	○	○

www.kci.go.kr

제14 단락	(1) 놀부 잘못 깨닫고 뉘우침	×	×	○
	(2) 놀부가 흥부 찾아감	○	○	○
	(3) 흥부가 집을 지어줌	×	○	×

제1단락 초앞과 제15단락 뒷풀이를 제외하고『朝鮮の物語集附俚諺』의 개작 양상을 경판본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朝鮮の物語集附俚諺』본「흥부전」은 제7단락에서 제13단락까지에 해당하는 제비의 보은·보수담이 중심이다. 그리고 흥부와 놀부 즉 등장인물에 관한 서사적 형상화도 대폭 축소되어 있다. 예를 들면 놀부의 심술타령이나 놀부가 동생 흥부를 내쫓고 박대하는 모습 등(제2단락)이나 흥부와 흥부 처, 흥부 자식들의 가난과 품팔이와 매품팔이에 관한 화소들(제3단락)을 모두 생략하여 놀부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대강화하였다. 또한 '조선'을 표상하는 구체적인 배경 정보 역시 수록 과정에서 삭제한 것도 확인된다. 결과적으로『朝鮮の物語集附俚諺』수록「흥부전」의 모습은 독본본「흥부전」과 유사하다. 1917년『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흥부전」의 기본적인 틀은 1910년『朝鮮の物語集附俚諺』「흥부전」과 유사한 관점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두 이본의 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옛날, 어느 곳
②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
③ 제비 박씨를 중심으로 하는 보은·보수담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흥부전」의 식민주의적 호명은 조선의 역사, 문화 등 조선의 전통으로 인식되어온 설화나 민담, 풍속 등이 실은 일본의 전통과 '동형(同型) 관계'를 형성하는 실증적인 근거로 활용된 셈이다.

26) 김창진(1991)의 구분을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27)『朝鮮の物語集附俚諺』에는 매품팔이 화소 이후에 흥부가 놀부를 찾아갔다 쫓겨나오는 화소가 나와 경판본 화소의 순서와 다르다.

www.kci.go.kr

이와 관련하여 1912년 다카기 토시오[高木敏雄]가 발표한 「日韓共通の民間說話」는 「흥부전」의 동형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다카기는 『東亞之光』에 2회에 걸쳐 연재한 「日韓共通の民間說話」에서 일본의 '腰切雀 혹은 舌切雀'과 「흥부전」이 같은 유형의 설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高木敏雄, 1912.11:62~69; 1912.12:41~52; 조희웅, 2005:11 재인용). 또한 1919년 미와 다마키[三輪 環] 역시 『傳說の朝鮮』을 편찬하면서 그 안에 「흥부전」을 수록했다. 이때 「흥부전」의 제목을 일본의 「혀 잘린 참새」와 동일한 구형(句型)인 「다리 부러진 제비」로 변형하여 수록했다. 일본 설화의 관점에서 「흥부전」을 읽은 셈이다.

여기서 「흥부전」과 동형의 이야기로 간주되는 일본의 이야기 중에서 「혀 잘린 참새[舌切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혀 잘린 참새」는 「복숭아 도령」, 「원숭이와 게의 싸움」, 「꽃 피우는 할아버지」, 「딱딱 산」과 함께 일본의 5대 동화로 손꼽히는 이야기로서 「흥부전」과 마찬가지로 구전 과정에서 다양한 이본을 탄생시키면서 전승되어온 적층 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중심 화소를 기준으로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흥부전	혀 잘린 참새
① 옛날, 어느 곳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다.	① 옛날에 할아버지가 참새를 귀여워하며 키웠다
② 형 놀부는 욕심이 많고 못된 심성을 가졌다.	② 할머니가 세탁을 하는데 참새가 풀을 먹어 버렸다.
③ 아우 흥부는 가난하지만 정직하다.	③ 화가 난 할머니는 참새의 혀를 잘라 버린다.
④ 어느 해 봄 흥부네 둥지를 틀었던 제비 한 마리가 다쳐 정성껏 치료해 준다.	④ 혀 잘린 참새는 울면서 산으로 간다. 할아버지가 그 사정을 알고 실망한 후 다음 날 산에서 참새를 만난다.
⑤ 제비 날아가 보은박씨 물고 온다.	⑤ 할아버지는 참새에게 환대를 받고 참새에게 상자 두 개를 받는다.

www.kci.go.kr

⑥ 심은 박씨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부자가 된다.	⑥ 할아버지는 그 중 작은 상자를 안고 돌와 왔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⑦ 소식을 들은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치료해 준다.	⑦ 할아버지에게 정황을 들은 할머니도 산으로 간다.
⑧ 제비 날아가 보수 박씨 물고 온다.	⑧ 할머니에게도 참새가 상자 두 개를 내밀었는데 할머니는 그 중 큰 상자를 갖고 온다.
⑨ 심은 박씨에서 온갖 몹쓸 것들이 나와 집안이 망한다.	⑨ 할머니가 집에 와서 큰 상자를 열어보니 뱀, 지네 등이 가득했다.

일견하더라도 두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는 점 외에도 내용 면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 가령 두 이야기 모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통해서 보은보수(報恩報讎)나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강조한다. 「혀 잘린 참새」는 참새가, 「흥부전」에서는 제비가 보은보수를 관장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가 대립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혀 잘린 참새」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부부가 대립관계로, 「흥부전」에서는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대립관계로 그려져 있다. 그 대립 양상이 매우 분명한 선악 관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 역시 공통적이다. 그리고 이들 대립적인 인물들 즉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혀 잘린 참새」에서는 참새이고, 「흥부전」에서는 제비라는 점 역시 유사하다. 이를 다시 중심 화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흥부전	혀 잘린 참새
① 옛날, 어느 곳	① 옛날
②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	②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부부
③ 제비 박씨를 중심으로 하는 보은·보수담	③ 참새의 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보은·보수담

www.kci.go.kr

독본본 「흥부전」은 경판 25장본 「흥부전」에서 해학이나 풍자적 요소와 '조선'을 상징하는 화소들을 걷어내고 단지 선악 대립이 분명한 인물 관계와 동물의 보은·보수라는 요소를 추출하여 일본의 「혀 잘린 참새」와 유사한 구조로 재구성되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일본 설화를 준거로 한 「흥부전」의 개작은 일본과 조선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역사나 문화적으로도 유사하다는 동화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일본을 준거로 설정하여 전체 서사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개하는 일련의 개작 행위는 단군이 기기신화에 나오는 스사노오 노미고토[素戔嗚尊]의 아들과 동일인이라고 하는 식으로 일본을 우위에 두는 일선동조론적 역사 기술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28] 이렇게 본다면 독본본 「흥부전」은 일선동조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민담을 준거로 삼아 재구성한 식민 교육용 이본인 셈이다.

28) 주지하듯이 일선동조론은 1890년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구메 쿠니다케[久米邦武],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등 3명의 도쿄제국대학 국사과 교수들이 『古史記』와 『日本書記』를 분석하여 편찬한 『國史眼』에서 스사노오미노미고토가 조선의 지배자가 되고 신화에서 1대 신무천황(神武天皇)의 형으로 전해지는 이나히노미고토[稻永命]가 신라의 왕이 되며 그의 아들이 일본에 귀복하고 신공황후가 삼한을 항복시켜 신종(臣從)시켰다고 기술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론화되었다.

www.kci.go.kr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선총독부,『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권1～권6, 강진호・허재영 편(2010),『조선어독본』2, 제이앤씨.
高橋亨,『朝鮮の物語集附俚諺』, 日韓書房, 1910.
김진영 외 역주,「경판 25장본 <흥부전>」,『흥부전 전집』2권, 박이정, 2003.

2. 저서 및 논문

강용권,「판소리 唱本의 硏究」,『東亞論叢』제12집, 동아대학교, 1976.
권보드래,『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매일신보를 통해 본 한국 근대의 사회문화 키워드』, 동국대출판부, 2008.
권혁래,「다카하시(高橋)본 <춘향전>의 특징과 의의」,『고소설연구』제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ㄱ).
_____,「일제하『흥부전』의 전래동화화 작업에 대한 고찰」,「동화와 번역」제13집, 건국대출판부, 2007(ㄴ).
_____,「근대 초기 설화・고전소설집『조선물어집』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한국언어문학』제6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김용의,「한국과 일본의「혹부리 영감瘤取り爺)」譚」,『日本語文學』제6집, 1999.
김종대,「<혹부리영감談>의 형성 과정에 대한 試考」,『우리문학연구』제20집, 2006.
김창진,「흥부전의 이본과 그 계열」, 인권환 편(1991),『흥부전 연구』, 집문당, 1991(ㄱ).
_____,『흥부전의 이본과 구성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1(ㄴ).
김태준,「흥부전의 비교 고찰」,『동악어문논집』제4집, 동악어문학회, 1966.
김혜련,『식민지기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8.
박경용,「統監府의 조직과 역할 고찰」,『아시아문화』제1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백광렬,「일제의 대한(對韓) 식민지 교육 체제의 구상과 실행」,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2005.
서영희,「대한제국의 보호국화와 일제 통감부」,『역사비평』제52집, 역사문제연구소, 2000.
이명화,「조선총독부 학무국 운영과 식민지 교육의 성격」,『향토서울』제69호,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2007.
조희웅,「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어문학논총』제24집,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5.
조희정・서명희,「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1)」,「문학교육학」제1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허재영,『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문화사, 2009.
황 숙,「「興夫傳」中心의 판소리 辭說과 판소리系 小說의 特質 對比考」,『국어교육연구』제2집, 원광대, 1980.
弓削幸太郎,『朝鮮の教育』, 東京;自由討究社, 1923.
경성전기주식회사,『今昔三十年座談會速記錄』, 1938.
小田省吾,『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10년 12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www.kci.go.kr

Abstract

Chosuneo Language Textbooks used in primary school in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and *HeungbooJeon*

Kim, Hye-Ryun
(Sungshin Women's Univ.)

HeungbooJeon, one of Korean traditional stories, has steadily been published and appeared ranging from primary school textbooks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age, and Curriculum textbook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from the 1st National Korean Language to the 7th National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s. Among other things, this research thesis focused on Heungboo appearing in Chosun-uh-geup-Hanmoon-Dokbon for primary school(1913～1918) in primary school.

Why did the Colonized government select *HeungbooJeon* as one story to appear in Chosuneo Language Textbook?

The Teaching Materials of *HeungbooJeon* was pursued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age from the perspectives of colonization educational systems, which reconstructed the overall Chosun educational systems ranging from curriculum to teaching methods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colonization, on the basis of logics which was promoted in the colonization age.

In other words, *HeungbooJeon* appearing in Chosuneo language textbooks was

www.kci.go.kr

revised according to the Japanese folk tale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fact that Japan and Chosun are close geographically and, justifying the assimilation policy that the two nations are similar in aspects of race, history and culture *HeungbooJeon*o can be cited as the colonized education version, which was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Japanese folk tales, in an attempt to build the discourse of same genealogy between Japan and Chosun.

Key Words : the 1st Educational Ordiance in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Chosun-uh-geup-Hanmoon-Dokbon for primary school, *HeungbooJeon,* the discourse of same genealogy between Japan and Chosun, the colonized education version.

www.kci.go.kr